율촌산단에 폐타이어 고형연료 공장

금호석화, 16만㎡에 1000억 들여 9월 착공 2015년 완공

여수 율촌 제1산업단지에 폐타이어를 활용한 대규모 고형연료제품 공장이 들어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금호석유화학㈜과 율촌제1산단내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장 후보지에 대한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2015년 완공할 계획이다.

부지 16만5000여㎡에 투자규모는 1000억원, 고용인원 500여명, 연간 18만t의 폐타이어 고형연료(TDF. Tire Derived Fuel)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폐타이어 고형연료(TDF)는 폐타이어를 3~20㎜ 크기로 잘게 자른 뒤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호석화는 또 나무 조각을 태워 고밀도, 고열량의 우드펠릿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TDF는 여수산단내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기와와 패널 형태의 태양열 집열유리와 집열판, 집열시트를 생산, 국내건설사와 일본주택건설사에 납품할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기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노하우를 십분활용, 석탄 등을 대체할 고형원료를 생산하게 된다"며 "환경오염 등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벌교 배수펌프장 악취·해충 주민 고통

노천에 설치 20년 넘게 운영

운영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은 보성군 벌교 역전1 배수펌프장 시설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19일 보성군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설치된 벌교 역전1 배수펌프장 시설은 노천에 설치돼 배수펌프장 집수정에 모인 인근 폐수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파리·모기 등이 대량 서식하고 있다.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에서 5m도 안되는 거리에 주거지가 있는데도 매년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어 주민 이주나 시설 이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모(52)씨는 "최근 지어진 배수펌프장들은 모든 시설이 건물 내에 설치되고 주변 경관도 좋지만 역전1 배수펌프장의 경우 완전히 노출돼 있다"며 "여름에는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매년 한 차례씩 집수정 바닥에 있는 슬러지를 청소하고 있지만 슬러지 일부만 걷어내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근에는 국궁장까지 들어서면서 주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자가용 2부제 시범 운영

순천시가 2개월여 앞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자가용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박람회기간 중 1일 최대 3만여대의 차량이 박람회장 진입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월부터 4월까지 차량 2부제를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2단계로 박람회 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첫날인 오는 21일과 3월 11일, 4월 1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번호인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3월 2일과 22일 그리고 4월 12일은 짝수 번호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다.

2부제 운행 대상은 영업용, 대중교통, 장애인차량을 제외한 10인승이하 자가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시는 해당 일에 관공서 및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 주차장과 공공 유료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고 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지원본부의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리 준비가 잘된 박람회일지라도 순천을 찾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교통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박람회 성공은 어렵다는 것을 시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차량 2부제 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당재천 제방 유실 방치 고흥군 점안면 천학리에 있는 당재천 제방이 지난해 태풍 피해로 유실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논밭 진입로 역시 무너져내리면서 차량 통행마저 어렵게 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멧돌 호박죽 '맛, 죽이네'

보성 농부생각법인 생산

설이 지나 조금은 여유로울 법도 한데 지난 18일 보성군 쾌상리 두방마을 농부생각영농조합법인 작업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호박죽 생산에 분주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호박죽은 4월초에 파종하여 9월에 수확한 과육이 두껍고 향이 진한 골이 깊은 멧돌호박이 주재료이다.

이렇게 잘 쑤어진 호박죽은 스테인레스관을 통해 멸균용 레토르트 파우치에 넣어 자동 포장되며, 포장된 호박죽은 멸균기에 넣어 섭씨 121도에서 스팀가열하게 되면 상온에서 어디에 보관하더라도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직 생산 초기단계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활발한 이뇨작용과 폐 건강, 당뇨 예방, 다이어트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호박을 간편하게 죽으로 먹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 장기 환자, 임산부, 일반 가정 등에서 주문량도 늘고 있다.

고향 보성으로 귀농한 이천민 농부생각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오염되지 않은 활성산 물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전한 먹거리와 장수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지난해 전남 동부 바다낚시 15만명

지난해 낚싯배를 타고 전남 동부지역 섬과 바다로 나간 낚시객 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와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의 낚시어선 이용객은 모두 15만860명으로, 2011년 14만8128명에 비해 1.8%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선정원 초과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은 출·입항 신고 미필과 음주운항, 정원초과가 각 1건이었고 기타 영업시간 위반 등이 4건 적발돼 형사처벌 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산림청, 거금도서 3천그루 나무심기

산림청은 20일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에서 3000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벌인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앞당긴 것이다.

남부지역 자생 수종인 황칠, 구실잣밤, 가시나무 등의 묘목을 심을 계획이다.

산림청은 거금도 산림에 산재한 외래 침입수종, 고사목, 불량목 등을 제거한 뒤 지역 자생수종으로 이뤄진 난대상록활엽수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전남도, 고흥군, 산림조합 전남도지회, 광주 생명의 숲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호남과 서부 경남지역 국유림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660ha에 편백나무 등 186만그루를 심기로 했다.

김성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뛰어난 바다경관을 자랑하는 고흥은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수도로 이곳에서 시작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전북

"풍년들게 해 주소서" 지리산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신제'가 19일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열렸다. 와운마을 주민들은 500여년 동안 마을의 당산목인 할매소나무(천연기념물 424호)와 할배소나무에서 '지리산 천년송 당산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전주대사습놀이·경기전 등 소개

'천년 전주 기네스' 발간 6개 분야 114건 수록

전주시가 시민의 별난 자랑거리 등을 담은 '천년 전주 기네스'를 19일 발간했다.

이 책은 문화·예술·체육, 수집·기록, 완판본·출판, 음식, 무형 문화재, 유형문화재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114건을 소개하고 있다. 전주의 숨은 자랑거리나 끼와 재주가 많은 이웃 사람 등을 찾아 갖가지 사연을 수록한 것.

300년 전통의 전주대사습놀이, 대를 잇는 대장간, 조선 태조 어진이 봉안된 전주 경기전, 음식 문화의 백미인 전주 한정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양다방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돼있다.

특히 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공직에 들어와 퇴직할 때까지 월급봉투를 고스란히 모아둔 이종찬(67) 씨는 " 내 인생의 행적을 담은 최고의 선물"이라며 빛바랜 월급봉투를 주섬주섬 꺼내 놓았다. 공직에 입문해 처음 받은 월급봉투에는 4543원이 적혀 있다.

이씨는 공무원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틈틈이 농사도 지었다고 회고했다.

이씨를 비롯해 52년간 신문을 모아온 송상천씨, 30년 넘게 '포니 2'를 몰고 다니는 곽효무씨, 5년간 150만 자에 달하는 성경책을 1800장의 전지에 또박또박 붓글씨로 옮긴 이현웅씨 등이 대표적이다.

양연수 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은 "전주의 온갖 역사를 제대로 알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책으로 발간했다"면서 "하나하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만큼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남원 특성화고 '잘 나가네'

졸업생 78% 취업·대학 진학… 맞춤형 교육 효과

남원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과 대학 진학에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 경마축산고등학교와 제일고, 용성고, 국악예술고 졸업생 총 346명 중 78%인 271명이 취업(126명)과 대학진학(145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처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남원시는 1학년 때부터 실무실습 등 맞춤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자평했다.

특히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해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자격취득을 돕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마축산고의 경우 졸업생 20명 중 19명이 취업해 특성화 고교의 명성을 날렸다. 이 중 7명은 호주 브리저븐(brisbane)시에 있는 경마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제일고등학교도 졸업생 148명 중 69명이 금융, 기업체, 미용업체, 조리분야에 진출했고, 54명은 대학에 진학했다.

김윤아·양예진·최현주 양은 각각 국민은행·농협·ibk기업은행의 높은 취업벽을 뚫고 입성했다. 졸업생 3명이 한꺼번에 중앙은행권에 입사한 것은 제일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있는 경사이다.

용성고등학교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졸업생 98명 중 72명이 취업과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봇학과 20명 중 15명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업체에 입사하는 등 37명이 성공했다. 또 2명은 9급 농업직 공무원시험에 합격에 공직사회에 발을 디뎠다.

국악예술고등학교는 졸업생 80명 중 56명이 서울예술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의 특성화고 지원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도 남원제일고(식품)와 남원용성고(로봇산업), 한국 경마축산고(마필관리)에 각각 4200만~4600만원까지 모두 1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농가·영농도우미 사업 등 7억 투자

순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순창군이 올해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과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인안전공제, 재해보험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체 인력 사용시 60일간 1일 3만6000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면 가능하다.

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해당된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1일 5만1000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 한옥마을서 정월대보름 체험

1년 중 달이 가장 밝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열린다.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은 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등 8개 시설에서 정월 대보름 놀이, 음식, 풍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문화관은 풍물공연과 달집태우기를, 공예품전시관은 부럼나눔행사를, 한옥생활체험관은 연 만들기와 오곡밥 나누기를 준비했다. 최명희 문학관에서는 추억을 담은 액자를 선물하고 술박물관에서는 건강을 지키고 귀가 밝아지라는 의미의 '귀밝이술 마시기'를 한다.

이밖에 장구 체험교실, 액막이 연 만들기, 행운 점 뽑아보기 등도 마련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명품 맛집 찾습니다"

군산시가 특색 있는 맛을 내는 '명품 맛집'을 찾아 나선다.

지정 대상은 개업 후 3년이 지난 음식점으로, 명품 맛집은 맛·메뉴 전문성·가격 적정성·위치 접근성·음식재료 신선도·위생상태·친절도 등의 기준으로 선정된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음식점은 맛집 지정증·표지판과 함께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 홈페이지와 홈보 책자를 통해 음식점의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옥천골 순창이야기' 책자 발간

순창군의 문화유산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옥천골 순창이야기' 스토리텔링 책자가 최근 발간돼 화제다.

'옥천골 순창이야기'는 지난해 순창공공도서관(관장 김은주)에서 운영했던 야간문화 프로그램인 '옥천골 향토자료 연구회' 주관으로 발간했다.

순창군 문화해설사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옥천골 향토자료 연구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차례씩 미팅을 갖고 각 면에서 발간한 면지와 그 밖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이야기로 엮었다. '옥천골 순창이야기'에는 홍성문 대사, 가인 김병로 선생, 하서 김인후 선생 등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강천사의 용대암 전설과 설씨 부인 권선문첩 등이 담겼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농기센터 "19일부터 보리 웃거름줘야"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19일 "보리 생육상태와 최근 기상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기온이 영상이 된 이날부터 농민들은 월동보리 웃거름 시용과 습해예방 등 월동 후 적절한 보리 포장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생육재생기는 일평균 기온이 영상 기온이 유지되는 날수가 5~7일 이어지고 지상부 절단 후 1㎝ 이상 자란 시기로 판단한다. 올해 생육재생기는 19일로 판단했다.

센터 관계자는 "보리 웃거름을 주기에 적당한 시기는 생육재생기 10일 이내로 10a당 요소 10kg을 골고루 뿌려주고 모래땅인 경우에는 생육재생기 10일 내에 5kg, 그 후 20일경에 5kg을 나눠서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